

6·2 지방선거
이곳이 격전지

‘정치·경제·행정’ 달인들 치열한 각축전

무소속 구청장 vs 민주당 혈투

민주당이 공천 집중으로 주춤하는 사이 무소속 등 비민주당 후보들의 공세가 치열하다. 광주·전남 격전지 10곳의 판세를 중간 점검해 봤다.

민주당 vs 참여당 당력 집중

■광주 남구

광주 남구청장 선거는 무소속으로 3선을 노리는 황일봉 현 구청장과 오는 24일 열린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통해 선출된 민주당 후보 간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황일봉 현 청장의 우세 속에 ‘3선 저지’에 맞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큰 관심이다.

황 청장은 지난 5일 ‘공천 쿠데타’와 다른 없는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아직까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 탈당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 청장은 8년의 구청 운영 과정에서 다져 놓은 지지기반을 내세워 ‘3선’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호 사량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 중심

■남구청장 입지자



김영진(47) 민주당, 김화진(51) 민주당, 정재훈(52) 민주당, 최영로(45) 민주당, 황일봉(54) 무소속

으로 한 노·장년 층 지지기반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에 맞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김영진·김화진·정재훈·최영호 예비후보 4명이 최종 경선에 나선 상태다. 시민공천배심원 제도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배심원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경쟁력있는 후보 선정만이 황 청장의 ‘3선’을 저지할 수 있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또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점도 남구청장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는 송병태 국민참여당 광산구청장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누르고 줄곧 1위를 차지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심 한 차례를 포함해 민선 2, 3기 광산구청장을 지낸 송 후보는 광산구청장 재직 시 다져놓은 특출한 조직력과 대중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랜 기간 행정경험도 다른 후보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광

■광산구청장 입지자



민형애(48) 민주당, 송병태(71) 국민참여당

산구청장 선거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참여당이 광산구를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고 있는 만큼 ‘당력’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1차 컷오프와 경

선을 거쳐 민형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광산구청장 후보로 선출하고, 본선 준비에 들어갔다.

민 후보는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김동철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광산 토박이’인 유재신 후보를 어렵게 제치고 광산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민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만큼 국민참여당의 ‘노풍’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청장 선거변수는 수안·신창지구 등 광산구 산흥 도심지역 유권자의 표심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가 예전처럼 농촌 중심의 도시가 아닌 외지인 비율이 높은데다, 신흥 도심 개발 등으로 도농복합도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토박이 vs 새 일꾼’ 대결전

■곡성군

곡성군은 3선 고지로 줄달음치는 조형래 현 군수의 ‘뒷받’에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이 ‘장기집권 저지’를 외치며 도전하는 형국이다. ‘1만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조 군수의 ‘무혈입성’이 점쳐졌지만,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허 전 서장의 상승세가 무섭다는 게 지역정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민주당(2002년)과 무소속(2006년) 후보를 번갈아 당선시킨 지역 유권자가 무소속 대신 민주당 후보로 간판을 바꾼 현 군수와 경찰서장 출신의 무소속 정치 신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다. 곡성 출신인 조 군수와 육과 출신인 허 전 서장으로 인해 주민간 대결구도가 형성될 지 여부도 변수다.

조 군수는 지난 8년간 펼쳐온 친환경농업과 관광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지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조 군수는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섬진강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 ▲맞춤형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3선 고

■곡성군수 입지자



조형래(60) 민주당, 허남석(54) 무소속

지에 올라야 지금껏 뛰어난 공적 발전 정책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허 전 서장은 지난 2008년 곡성서장으로 부임한 뒤부터 군수직에 뜻을 두고 꾸준한 지역 활동을 펼쳐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표발을 하고 있다.

그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소비자 중심의 생산·판매망 구축 ▲국립섬진강 생물자원관 건립과 장산리 습지 보전사업 등을 통해 살기좋은 곡성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3번째 맞대결’ 최종 승자는

■구례군

구례군은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쥔 서기동 현 군수와 무소속 전경태 전 군수가 지난 2002년 이후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현재 전적은 1승 1패.

관심은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던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의 탈락으로 그를 지지하던 조직이 누구를 지지하고 나설지 여부다.

박 전 의장이 공천 결과에 불복, 재심을 신청한 만큼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 판세는 예측 불가하다. 서 군수는 지난 2002년 전 전군수에게 도전했다가 패한 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바람과 함께 당선됐고 이번에 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전 전 군수의 도전을 받는다.

전 전 군수는 무소속으로 4년 전 서 군수에게 뺏겼던 구례군수 탈환에 나선다.

서 군수는 민주당 공천을 확정된 여세를 몰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는 현지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내걸고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구례군수 입지자



서기동(60) 민주당, 전경태(62) 무소속

일자리 1천개 창출과 지리산 관광·레저 특구 정비 ▲5만 군민 및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대표 공약을 내걸었다.

전 전 군수는 계속되는 지역간 갈등 종식과 지지부진한 구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군민들과 만나고 있다.

전 전 군수는 재임 기간 중 계획했던 구례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 ▲지리산 미니어처 마을 건설 ▲장수체육대 설립 ▲초·중·고 생 활전 무상급식을 내걸고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형제군수 vs 부부군수 격돌

■화순군

화순군수 선거는 ‘형제군수’와 ‘부부군수’의 재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전경준 전 군수의 동생인 전완준 현 군수가 민주당 후보로, 이영남 전 군수의 남편인 임호경 전 군수가 무소속으로 맞붙는 형국이다.

일단 전완준 군수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바닥을 다져온 무소속 임호경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전 군수는 ‘중단없는 화순 발전’을 모토로 ▲전국 10대 살기 좋은 명품 행복도시 조성 ▲둔버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200만 관광객 대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임 후보는 동면에 폐광채택법을 유지하는 한편 2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세계거석공원 조성, 자연치료 휴양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 군수는 최근 측근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군수 관사까지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약세가 많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화순군수 입지자



전완준(51) 민주당, 임호경(58) 무소속

임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낙마한 전력이 있는데다 그동안 현직 군수와 사사건건 대립 양상을 보여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화순군민들의 우려도 깊어가고 있다.

화순군이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유별날 정도로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소·고발이 많고, 주민, 공무원 갈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만큼은 후보들이 구태적인 선거전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에 나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sightseeing spo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tour agencies.